

한국로타리 90년 기념 제56년차 지구대회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ROTARY:
MAKING A DIFFERENCE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총재 이순동
국제로타리 3650지구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날의 첫 마음과 같이 묵은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무술년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번 설을 지내면서 저는 “Family Together” 정신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렇듯이 큰집에 모여서 차례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른은 어른끼리, 자녀는 자녀들끼리 삼삼오오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가족이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물림되고 세대와 세대가 연속성을 갖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Family Together”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로타리도 배우자나 자녀, 선후배들을 본클럽이나 위성클럽으로 연계시키고 대물림해야 로타리의 미래도 밝아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지구가 주최한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숍’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인터랙트, 로타랙트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리더십을 익히고, 로타리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로타리안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역시 크게 보면 “Family Together”로 나아가는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 서울로타리클럽이 예비모임을 갖고 곧 위성클럽을 창립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클럽에서 “Family Together” 슬로건에 맞춰 회원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말 RI회비 납부 마감일을 맞아 서울하원로타리클럽에서 56명, 서울원효로타리클럽에서 14명 등 70명을 탈회시켜 회원수 증가가 멈췄지만, 이렇게 로타리 지도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밑거름이 되어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2,500명 지구목표는 반드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 로타리도 배우자나 자녀, 선후배들을 본클럽이나 위성클럽으로 연계시키고 대물림해야 로타리의 미래도 밝아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금년도 지구대회는 한국로타리 90년, “Pride of RI 3650” 가치를 드높이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지구대회, 우리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지구대회, 역동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지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회장, 총무님과 지구 임원 여러분,

우리 지구는 오는 3월 30일 열릴 제56년차 지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10개 지역 지역대표를 주축으로 “지구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6차에 걸쳐 전체회의와 유관 위원회별 소회의를 수시로 열고, 또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대회는 회원들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류에 맞춰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축제의 이벤트입니다.

회원들의 관심이 제일 큰 특별강연도 시사해설이나 일반적인 교양강좌 수준을 뛰어넘어 “로타리 봉사과 패밀리 투게더 슬로건에 맞는 봉사의 방향과 봉사와 연관된 신기술”과 같은 주제를 선정해 그 분야의 스타급 연사를 모시려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격조 있고 재미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우정의 집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로타리 90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27년 경성로타리클럽이 최초로 창립되어 우리 3650지구가 아흔 살 생일의 주인공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구대회는 이번 회기 중 우리나라 전체 19개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우리 지구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국로타리 90년, “Pride of RI 3650” 가치를 드높이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표님들과 클럽 회장, 총무님 등 모든 회원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주인공인 지구대회, 우리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지구대회, 역동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지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월 23일은 국제로타리 113주년을 맞는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2월은 우리 로타리안들에게 “봉사의 달”이고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의 달”입니다. 이제는 봉사의 기준이 봉사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도 고객 만족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보다 기생충약을 사주었을 때 학교에 나오는 등교율이 700배 이상 올랐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석했던 사유가 기생충 감염으로 아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책결상이나 장학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로타리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는 수혜자들이 누리도록 해주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봉사의 씨앗을 심는 일을 위해 로타리의 기부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식 때까지 평화로운 인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한 곧이어 3월 9일부터는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에도 우리가 응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최상의 봉사는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30일은 봉사의 이상을 실천해온 우리들이 주인공입니다. 제56년차 지구대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